



‘원발 달인’ 김우홍

R 마드리드 U-14 입단

축구 유망주인 ‘원발 달인’ 김우홍(14)이 스페인 프로축구인 프라메리아가 ‘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 유니폼을 입는다.



스페인 축구 매니저먼트사인 베네스포츠의 레알 마드리드 14세 이하(U-14) 클럽팀과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선수가 연령대별 유소년팀을 통틀어 레알 마드리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활약에 따라 시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에 발탁된 김우홍은 짧은 기간에 거대한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남뉴스

역시 브라질... 컨페드컵 2연패

美 역습·두터운 수비에 고전 3-2 신승  
파비아누 ‘골든 슈’ 카카 ‘골든 볼’ 영예

‘삼바군단’ 브라질이 ‘아메리칸 드림’을 노리던 미국을 제물로 역전승을 거두고 통산 세 번째 컨페더레이션스컵(이하 컨페드컵) 정상에 올랐다.

브라질은 29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엘리스 파크에서 치러진 2009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드컵 결승에서 미국에 먼저 두 골을 내줬지만 후반에 두 골을 몰아친 루이스 파비아누(세비아)와 주

장 루시우(빈헨)의 결승골을 앞세워 3-2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997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질은 2005년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 등 통산 세 번째로 정상에 올라 역대 최다 우승국의 영광을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스페인 격파의 주인공 클린트 펠스(풀럼)와 랜던 도노반(LA 갤럭시)이 전반 10분과 27분에 연속골을 넣고 골

키퍼 팀 하워드(에버턴)의 슈퍼 세이브를 앞세워 내심 우승을 바라봤지만 브라질의 저력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브라질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지만 ‘선수비-후공격’을 앞세운 미국의 역습과 두터운 중앙 수비에 고전해야만 했다.

브라질 우승의 주역 파비아누가 5골로 득점왕인 골든슈를 차지했고, ‘하얀 펠레’ 카카가 대회 최우수선수(MVP)인 골든볼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또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펼친 미국의 골키퍼 하워드는 골든 글로브 상을 받았다.

한편 앞서 치러진 3-4위전에서는 스페인이 연장 승부 끝에 개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3-2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연남뉴스



전남 제일고 4년만에 정상

대통령배 수구 남고 결승

강호 경기체고 10-7 꺾어

전남제일고 수구부가 4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전남제일고는 29일 전주 완산실내수구장에서 열린 제28회 대통령배 전국수구대회 남고부 수구 결승에서 유병욱(3년)의 4득점 맹활약에 힘입어 강호 경기체고를 10-7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전남제일고는 공·수 조화를 이루며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5-1로 앞선 채 3피어디에 들어간 전남제일고가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6-4까지 추격을 당했으나

유병욱의 김현채(3년·2골)·박성찬(2년·2골)·신인식(3년·1골)·윤영관(1년·1골)의 선전으로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1992년 창단해 전국대회 35회 우승의 수구 명문인 전남제일고는 최근 4년째 선수 부족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하지만 목포실내수구장에서 하루 8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며 옛 명성을 되찾고자 구슬땀을 흘린 결과 이번 대회에서 감각적인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전남제일고는 여세를 몰아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5년만에 정상 탈환을 목표로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제일고는 현재 유병욱·김현채·신인식 3명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남현 감독은 국가대표 상비군도 함께 맡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

‘빛고을 광주 축구 최강전’

경기일정·엠블럼 확정

광주지역 아마추어 중학생 축구 대회인 ‘제1회 빛고을 광주 1315 축구 최강전’의 경기일정 및 엠블럼이 확정됐다.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축구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상무축구단이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8월22일 오후 7시 효광중학교와 상무중학교의 경기를 시작으로 두 달 여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9월4일까지 32개교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1,2차전을 치러 16강전 진출팀을 확정짓는다. 16강 진출팀은 다시 추첨을 통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갖고 8강을 가리게 된다. 이번 대회 전 경기는 방과 후인 오후 5시 열리게 되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3백만원, 준우승 1백50만원, 공동 3위에는 각각 1백만원이 지급된다. 또 득점왕, 대회MVP등 각종 개인상도 마련됐다. /김여울기자 wool@



브라질이 29일(한국시간) 열린 2009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남뉴스

‘풍운아’ 이천수 K-리그 퇴출 위기

프로축구 전남, 축구연맹에 ‘임의탈퇴’ 공시 요청

그라운드외 풍운아 이천수가 또 다시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해의 이적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전남 드래곤즈의 이천수가 결국 팀을 무단 이탈하면서 임의탈퇴 조치를 당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29일 “이천수가 코칭 스태프와 언쟁을 벌인 뒤 훈련에 불참하고, 감독의 지시에 불이행 한 끝에 팀을 무단 이탈했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수원으로 1년간 임대됐던 이천수는 팀 훈련에 불참하는 등 코치진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 임의 탈퇴 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한 전남 박항서 감독의 강력한 영입 요청으로 지난 2월27일 수원에서 6개월간 임대되며 그라운드에 복귀했던 이천수는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의 발단은 이적 문제였다. 이번 달 초 이천수와 연봉계약을 마무리 지었던 전남은 지난 23일 페예노르트측으로부터 이적 문제로 7월1일까지 선수를 보내달라는 갑작스런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천수 측이 페예노르트와 연봉 9억원 이상을 제시하는 팀이 나오면 무조건 이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계약을 놓고 양측의 감정이 악화됐다.



28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팀의 합류 요청을 받은 이천수는 27일 무상으로 풀 수 없다며 코칭스태프와 언쟁을 벌인 뒤 무단으로 팀을 이탈했다.

이는 포항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임의 탈퇴 조치로 K-리그에서 이천수의 활동은 계약을 받게 됐지만 국내팀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사로 클럽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외 이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무적상태’의 이천수를 전남으로 불러들인 박항서 감독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대운·김준선 역도 3관왕

〈정광고〉 〈광주체고〉

광주체고 최진호 금2 은1

‘고교 역사(力士)’ 전대운(정광고 2년)과 김준선(광주체고 3년)이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전대운〉 〈김준선〉 〈최진호〉

전대운은 29일 경기도 포천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1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겸 제68회 문국서상전매단체육대회 경기 대회 남고부 105kg급 경기에서 인상 150kg·용상 190kg·합계 340kg을 들어올려 문진(경남체고·인상 135kg·용상 181kg·합계 316kg)을 제치고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준선은 +105kg급 경기에서 인상 152kg·용상 190kg·합계 342kg을 기록, 지상무(충북체고·인상 151kg·용상 190kg·합계 341kg) 보다 간발의 차로 앞서며 3개의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94kg급 경기에서는 최진호(광주체고 2년)가 인상(141kg) 1위, 용상(173kg) 2위, 합계(314kg) 1위를 기록하는 선전을 펼쳤다.

특히 최진호는 지난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픔을 딛고 메달을 획득하는 더욱 값진 투혼을 발휘했다.

한편 광주체고는 남고부 단체전(박래민·최진호·김준선)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



30일(월)

▲2009 일본프로야구(히로시마 : 요미우

리)(17 : 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롯데 : LG)(18 : 10·KBS n스포츠) 〈두산 : 히어로즈〉(18 : 15·Xports) 〈한화 : SK〉(18 : 15·MBC ESPN) 〈KIA : 삼성〉(21 : 00·SBS스포츠)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원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주택 (내집마련/전원주택)					토지 (주방농장/전원주택 부지/묘지/무지)							
지역	소재지	면적	층/총수	감정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서구	금호동 풍물야파르	23	18/12	9300만	8500만	북구	오치동(오치동성당부근)	46/58	1억3000만	7200만	2층주택	동구	북하면 온곡리	과수원	3127	2억1700만	1억5000만
	중앙동 대주파크빌2차	46	17/7	1억8500만	1억2900만		누른동(북성파출소)	67/65	2억1200만	1억1900만	2층주택		세지동 송해리	밭	168	740만	500만
	차림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9600만		용동동(하이마트아울)	46/59	1억1400만	6400만	2층주택		세지동 온곡리(송죽마을)	논	1210	4000만	2800만
	용동동 새한센시빌	33	18/4	1억4500만	1억1100만		두림동(두림초교부근)	38/51	1억	7000만	2층주택		봉향동 온곡리(누실마을)	논	363	1200만	880만
	차림동 금호성원	52	17/11	2억4000만	1억8200만		백운동(백운초교부근)	43/40	8600만	4800만	2층주택		봉향동 온곡리(마솔마을)	밭	3127	2억1700만	1억5200만
화정동 화정주공	16	5/1	6300만	4400만	월산동(월산초부근)	44/44	1억	6800만	2층수리완료	대기동(가봉마을)	과수원	1946	9650만	4300만			
차림동 리안1차	25	20/20	8300만	6500만	백운동(수파마을)	38/43	9800만	5380만	2층주택	봉향동 신동리(두솔마을)	논	907	3800만	2500만			
진월동 힐튼메리	31	15/14	8400만	5880만	월산동(삼아마을부근)	34/37	7700만	4300만	2층주택	봉향동 송죽리(산정마을)	논	615	1750만	1200만			
백운동 사옥스카이	32	15/9	9000만	7900만	성북동(성북동사무소)	52/92	3억1300만	2억1900만	3층(신축)	동북면 일영리	밭	1651	4280만	2380만			
봉선동 라인	32	25/22	1억100만	7700만	남평동(남평리)	87/23	3600만	2000만	단층농가주택	한원면 정리(정동마을)	목장	1404	2억6200만	1억1700만			
송하동 금호타운	31	20/1	9000만	6300만						도곡면 한말리(도곡촌)	다지	1359	6억7400만	3억7700만			
봉선동 리안1차	32	25/22	1억1000만	7700만						남면 안말리	논	1168	3000만	2100만			
봉선동 솔리빅스캐이빈	62	20/19	2억8000만	1억9600만	상가주택/근린시설 (내집마련/상가임대)					숙박시설 (연수수익희망)							
운림동 리안1차	31	18/1	1억1000만	7700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정가	최저가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8600만	남구	주월동(백운정당부근)	124/294	11억3000만	7억8000만	4층연립건물	동구	북로동(그랜드호텔부근)	182/327	6층	12억2500만	6억88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46	15/2	1억5000만	1억1000만	월산동(동산(쌍방동부근))	124/371	10억4500만	3억1000만	5층(목욕탕)	서구	금호동(서구문화센터부근)	101/343	6층	13억4000만	7억5000만		
화정동 리안1차	50	11/3	1억4500만	1억1100만	관산	월곡동(하이마트건너편)	145/313	9억1400만	5억1200만	4층상가주택	화정동	화정동(동남1리부근)	100/435	7층	14억5000만	10억	
용동동 대주파크빌2차	33	13/6	1억3500만	9400만	북구	오치동(오치사거리교차)	268/670	22억	11억2800만	7층학원상가	북구	연향동(연향신원건너편)	410/871	8층	33억	14억7000만	
마곡동 롯데캐슬	33	14/5	1억7000만	1억1900만	토지 (주방농장/전원주택 부지/묘지/무지)					중형시설							
간화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정가	최저가	
용동동 미린보스타	33	20/14	9000만	63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동양동	동양동(동양신원건너편)	410/871	8층	33억	14억7000만	
매곡동 삼인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중흥동	전남일보부근	120/403	6층	13억	4억8500만	
운림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2300만	86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3000만	94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매곡동 삼성아파트	32	20/5	8000만	56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매곡동 삼성아파트	47	20/17	1억2500만	875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운림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0만	84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용남동 주공4단지	28	20/9	6300만	44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산동동 해방삼그리다	34	15/12	1억3500만	94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월계동 힐튼동주	34	15/14	1억2800만	89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월계동 힐튼동주	34	15/14	1억900만	758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신광동 호반메트로스타	34	24/12	1억6000만	1억12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월계동 힐튼동주	34	15/14	1억2800만	888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월곡동 한성아파트	33	15/12	7000만	499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연적	감정가	최저가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약, 주사, 링, 펌프가 아닙니다. 아내가 개발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신제품 기구입니다. 달팽이 모양의 대, 중, 소형 세트로 구성되어 실용성, 특히 등축되어 노년도 사용할 수 있으며 조루나 작은 분도 사용이 편리하고 후대가 간편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만족도는 제일 높은 볼타는 큰놈입니다. **저렴한 가격 99,000원** 다이아몬드링 추가시 3만원

“꿈”을 이루는 파워마카 파워마카 100(분말) (마카원료로만 100% 함유된 제품임)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생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삶의 질은 떨어지므로, 남성을 되찾아 기쁨을 누리는 황금기 인생으로 살아야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27년간 같은 장소, 같은 주주에서 도서출판 및 획기적인 공산품 개발과 수입오토바이를 서울본사와 일본 동경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담 010-8558-4114/02-2672-0454 전화 010-8952-4114/02-2633-4110**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 농협 307077-56-075592 예금주 전선영 입금 후 주소를 불러주시면 당일 발송 해드립니다. 동선판매신고증 제 19-5301호 / E-mail. yangko719@hanmail.net